

그 남자들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나

작가에게 '남성의 세계' 일러준 사람들의 《마이너리그》 독후감

은희경 소설의 주인공들은 소설 속에 형상화된 한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구체성과 묘사의 생생함에 동의를 표했다. 크게 유신세대의 연대기로 읽은 이들과 인간 보편적인 문제로 읽은 이들로 갈리는데, 연대기적 상징은 잘 짚었지만 내면마저 희화화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남성 대 여성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하며, 인생의 쓸쓸한 국면을 환기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작과비평사/A5신/250면/7500원



은희경씨(44)가 신작 장편소설 《마이너리그》(창작과비평사)를 펴냈다. 이번 작품은 '만수산 4인방'이라 불리는 네명의 개미 동창생 김형준, 배승주, 장두환, 조 국의 닝쿨처럼 엉킨 운명을 추적했다. 은씨는 이들의 번두리 인생행로를 세심히 따라잡으며 이른바 '2류 인생'들의 집단적 평균초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작가의 눈에 비친 남성들의 세계라, 어쩐지 페미니즘적 신랄함이 예감되지만 정작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은씨는 "세상의 남성과 화해하게 만든 것은 삶의 마이너리티 안에서의 동료애였다"고 말하며 이 책의 의도가 '공격' 보다는 '감싸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남성들의 세계

서문에서 작가는 "이 소설을 쓸 수 있도록 해준" 56명 남성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여기엔 전직 대통령도 세명 포함됐지만 대부분 은씨가 알고 지냈거나 또 만나고 있는, 1958년을 전후로 태어난 남자들이다. 그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아마 긴장하지 않았을까? 술자리에서 내뱉은 말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건 아닐까? '돼지우리'와 '사고 제로지대'로 묘사된 '만수산 4인방'의 학창시절은 바로 자신들의 과거가 아닌가? 게다가 글쓴이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당대의 '여검객'. 공격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위장술이 아닐까?

그러니 어찌 펼쳐보지 않을 수 있으랴! 《마이너리그》를 읽은 은희경 소설의 실제 '주인공'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우선 같은 세대를

산 사람들의 연대기적 기록으로 읽은 경우다. 김준홍씨(44, 《시사저널》 기자)는 1990년대 초반에 은희경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군대 이야기는 아무래도 내 이야기인 것 같다"고 치부를 드러낸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책 내용에 대해선 "스피디한 이야기 전개가 맘에 들었고, 여자의 감성으로 남자의 감성을 그만큼이라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며 고평했다. 김재태씨(43, 《시사저널》 기자)도 "유신시대의 '긴조', 월남패망, 교련실기대회, 울드팝송, 이소룡과 임예진, 재일교포간첩단사건 등 그 시대의 '아이콘'들을 잘 짚어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개인의 내면적 울림을 묘사하는 밀도가 높지 못해 아쉽다. 절실한 고민마저 희화화한 혐의가 있어 완벽한 마이너리그 서술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중환(44, 문학평론가), 서기훈(48, 경원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문정우(43, 《시사저널》 기자)씨도 비슷한 감상을 내놴다. 문씨는 59년생이지만 학교는 58년생들과 같이 다녔다며 자신이 '개미'임을 강조한다. 문씨는 "특히 학교생활이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개인적으로 일인칭 화자 김형준이 나의 모습과 많이 겹친다"고 말했다. 세상에 냉소적이고 천재연하지만, 치열하게 시대와 맞서거나, 약자를 밟고 올라선 이들의 눈에는 "비겁한 못난이"로 비치는 대다수 "소심한 아웃사이더"를 잘 형상화한 것에 점수를 준다. 서씨는 "억눌려 있던 젊은이들의 답답한 내면을 그린 부분, 학창시절 서로 이야기하기 꺼려해 넘어갔던 주제들, 가려 있던 기억의 한 갈피를 확

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인생 자체의 '마이너'적 본질 환기시켜

은씨에게 작품의 소재를 제공한 남자들 가운데는 5~6살 터울의 인생선배들도 상당수다. 김상익씨(48, 《시사저널》 편집국장)는 작가의 남편이다. 그는 책을 읽는 내내 배를 잡고 킁킁거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쓸쓸했다. 자신이 '마이너'라는 점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잘 나가'는 시사주간지 편집국장인 그는 사실 메이저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낫다 하더라도 집안에서의 위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세월이 닳고 평범해지는 것이 인생 아닌가"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의 이야기도, 유신시대의 이야기도 아닌 《마이너리그》는 인생의 쓸쓸한 뒤안을 들추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 결론짓는다.

강철주씨(44, 출판평론가)는 한때 은씨의 직장동료였다. 그는 "남성은 기득권이고 여성은 소수세력이라는 대립구도가 과연 우리 사회를 진정하게 드러내는 구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로 읽었다. 또 엄숙하고 이마에 주름잡기 좋아하는 우리 소설 풍토를 경쾌하게 비꼬는 점도 높게 샀다. 그런데 은희경 소설의 실제 주인공들은 대체로 소설 속에서 자신과 꼭 같은 인물은 찾지 못했다. 특정 개인을 모델로 했다고 보다는 '마이너리티'라는 시대의 '무의식'이 만든 가공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 강성민 기자